



광양제철 4고로 본격 가동

포스코 정준양 회장(오른쪽)과 조희하 광양제철소장 등이21일 광양제철 제4고로 화입식에서 용광로에 불을 붙이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5개월간의 4고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년 커지는 ‘의료 블랙홀 서울’

광주·전남 환자 10명 중 3명 수도권으로
年 1200억 유출...지역병원 어려움 가중

한 해 수십만명의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이 서울지역 병원을 찾아 1천 200억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6~2008년 지역간 의료 이용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이 서울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지역 의료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개통 이후 2006년부터는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서울지역 병원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매년 1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환자의 서울지역 병원에 대한 진료비는 2006년 295억원에서 2007년 321억원, 2008년에는 37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도 2006년 81.5%→2007년 78.6%→2008년 76.6%로 점차 낮아져 환자의 역외유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광주 환자 10명 가운데 2.3명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환자의 서울지역 병원에 대한 진료비는 2006년 832억원에서 2007년 835억원, 2008년 85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006년 66.3%→2007년 66.2%→2008년 66.9%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남 환자 10명 가운데 서울 유출 환자는 4.3명으로 광주지역보다 서울병원 의존율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역 환자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서울 삼성병원, 아

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Big)4’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빅4 병원의 평균 지방환자 비율은 지난 2002년 41.2%에서 2007년 48.5%로 늘어, 환자 절반 가량이 지방 환자인 셈이다. 더욱이 서울 지역으로 유출된 환자의 상당수가 암이나 장기 치료자로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선대 병원 박민수 홍보팀장은 “조선대와 전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들도 40억원에 가까운 방사선 치료기를 이미 구비해놓는 등 최첨단 의료기기와 의료진이 포진해 있다”면서 “무조건 서울병원을 찾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과다 비용은 물론 환자 보호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종플루 ‘주의’→‘경계’로 격상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가 상향됐다. 또 ‘봉쇄와 차단’ 중심의 방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기치료 중심으로 대응방식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작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

계’로 상향 조정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와 열고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수는 922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 기업호감도 전국 최하위

전남은 14위...윤리경영·사회공헌 활동 늘려야

광주시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의 성별, 연령별로 2천27명(광주 59명, 전남 79명)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 기업 호감도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호감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44.5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46.1점·14위)도 전북(45.4점·15위)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광주지역 CFI를 요소별로 보면 국제 경쟁력이 71.3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생산성 향상이 63.4점, 국가경제 기여 49.0점, 전반적 호감도 42.6점인 반면 윤리경영실천이 13.9점, 사회공헌활동은 34.7점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정경유착 36.0%, 분식회계 등 비윤리적인 경영 24.0%,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 24.0%, 경영권 세습 등 특별 경영 12.0% 등을 꼽았다.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48.5%, 국가 경쟁력 강

화 근로자 복지 향상 23.8%,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 17.8%, 국가 경쟁력 강화 8.9%, 이윤창출을 통한 국부 증진 1.0% 등의 순으로 답했다. 호감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그 이유로 국가 경제 기여 40.0%, 국가 브랜드 향상 40.0%, 일자리 창출 20.0% 등을 꼽았다. 한편 전국 평균 호감도 지수는 100만점에 50.2점을 기록, 지난해 하반기보다 2.1점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54.5점, 대전 53.7점, 서울 52.6점, 경북 52.2점 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기업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국민이 기업에 호의적인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호감도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

■지역별 기업 호감지수

순위	지역	CFI(점)
1	대구	54.4
2	대전	53.7
3	서울	52.6
4	경북	52.2
5	경남	51.2
6	울산	50.9
7	경기	50.0
8	강원	49.9
9	충남	48.6
10	충북	48.5
11	인천	48.5
12	제주	48.3
13	부산	47.4
14	전남	46.1
15	전북	45.4
16	광주	44.5
	전국	50.2

호남고속철 24일 기공식

오송~광주 2014년 완공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이 오는 24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4일 호남고속철 익산역 구간 건설사업 착공으로 총사업비 11조3천382억원을 투입하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 전 구간(230.9km)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호남고속철은 이미 지난 5월 오송역 건설 공사를 통해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전라북도도와 공동으로 기공식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호남고속철사업은 1단계로 광주까지 2014년 개통되고 이어 2017년 목

포까지 연결되면서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1단계 완공 시점인 2014년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로 1시간33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며 2단계 공사까지 끝나면 현재 3시간여 걸리는 서울~목포 구간이 1시간46분 정도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호남고속철 공사는 기본설계부터 경부·글로벌 고속철도 설계 기준을 검토해 국내 환경에 맞도록 기준을 세웠다. 철도 교량에 설치되는 35m 길이 상관을 3~5일 만에 신속하게 연결하는 PSM공법을 채택해 공기를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성산 사태’를 교훈 삼아 환경·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계통

산 국립공원을 우회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하는 등 환경 논란을 배제한 것도 특징이다. 또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자갈 노반 대신 전 노선을 콘크리트 노반으로 대체했다.

조현용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의 경우 12년이 걸린 데 비해 호남고속철 1단계 사업은 5년 내 완공이 가능하도록 공법을 최신화했다”며 “건설단계에서 25조 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17만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세기보청기

세계최대 보청기 제조사 세기보청기
한국보건복지부 지정 보청기 인증기관
보청기 성능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대표점 / POUNDY

상담전화 1588-8419 / 060-222-0100

세기보청기 대표점 / POUNDY